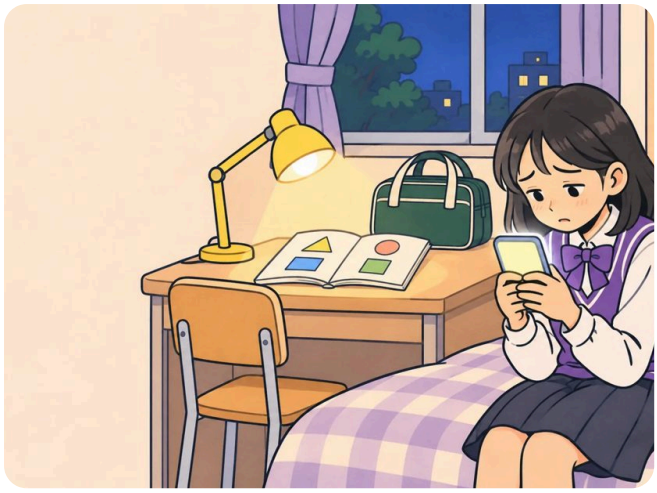


이야기 카드 1

매일 밤 통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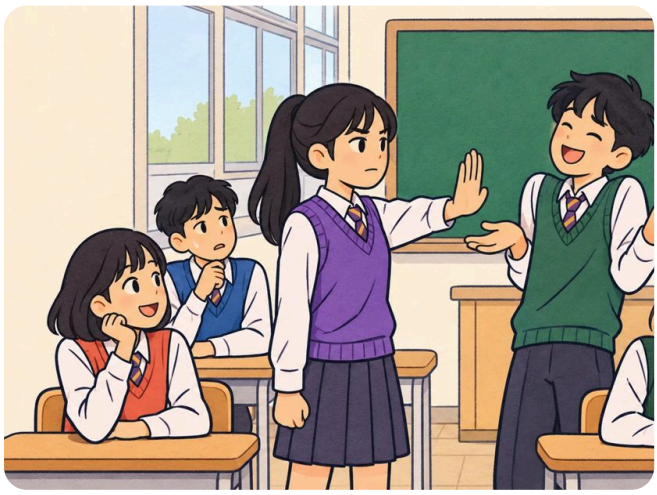
시우는 단짝 은채에게 매일 밤 통화하자고 한다. 학원 숙제가 많던 날 은채가 "오늘은 못 해."라고 보내자, 시우는 "너 이제 나 싫지?"라고 답하고 다음 날 하루 종일 은채와 말하지 않았다.



이야기 카드 2

"요즘 바쁘구나?"

수빈이와 다온이는 점심도 하굣길도 늘 함께다. 어느 날 다온이가 다른 친구와 매점에 가자, 수빈이가 "요즘 바쁘구나?"라는 메시지를 보냈다. 다온이는 답장을 어떻게 할지 한참 고민했다.



이야기 카드 3

장난인데 왜 정색해?

준서는 유나를 '거북이'라고 부른다. 걸음이 느리다는 이유다. 반 아이들이 웃는 가운데 유나가 "그만해."라고 하자, 준서가 "장난인데 왜 정색해?"라고 말했다.



이야기 카드 4

늘 내가 사는 간식

하굣길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건 늘 은호다. 도현이는 매번 "다음엔 내가 살게."라고 하지만 한 번도 산 적이 없다. 은호는 서운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.